

국내

광주일보 선정 2010년 국내·국제 10대 뉴스

국제



北 연평도 포격...남북관계 위기

3월26일 백령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 승조원 46명이 전사했다. 북한은 또 11월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도 공개했다.

6·2 지방선거 지방권력 교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치러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고, 지방권력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으로 넘어갔다. 야권은 10석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한 반면 한나라당은 6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야권은 146곳에서 승리, 한나라당을 앞섰다.



칠레 매몰광부 극적 구조

8월5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 매몰로 지하 700m 경도에 무려 69일간 갇혔던 33명의 광부 전원이 구조기술 '불사조'를 이용해 구출됐다. 22시간의 구조 작전은 전세계를 흥분과 감동으로 몰들었으며, 살아난 광부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끝에 결국 지하에서의 최장 기간 생존 기록을 남겼다.

中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류샤오보는 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당시 단식투쟁을 이끌었으며, 2008년 민주화 요구를 담은 '08헌장' 발표를 주도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결국 시상식 등 류샤오보가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北, 김정은 후계 확정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9월28일 30년만에 소집된 당 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권력 승계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상 초유의 '3대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총리 사퇴

정부는 1월11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며,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댄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7월29일 담화문을 통해 공식 사퇴했다.



위키리크스, 美 외교전문 폭로

호주 국적의 해커 출신 줄리언 어산지(39)가 주도하는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11월 28일부터 대량의 미국 외교전문(電文)을 공개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기밀 공개에 이어 단행한 25만여건의 폭로는 메카톤급 과장으로 세계를 뒤흔들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그리스가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받은 데 이어 아일랜드도 연말에 이 대열에 합류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으로 불길의 번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차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자금 투입량을 늘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중국은 달러를 1차에 인상하는 등 출구전략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F1코리아 그랑프리 역사적 개최

F1코리아 그랑프리가 10월 22일부터 3일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남 영암에서 열렸다. 16만명의 관람객 몰이에 성공, 국가 브랜드 및 지역 이미지 홍보면에서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서남권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건설사 연쇄부도

새해 벽두인 1월6일 지역 건설사 시공능력 1위(전국 12위)인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데 이어 4월2일 2위(전국 33위) 남양건설, 4월28일 3위(전국 46위) 금광기업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역 건설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대형 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협력업체의 부도도 이어졌다.



이승산 여사 7년만에 연금 해제

이승산 수처(65) 여사의 연금 해제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히는 미얀마의 민주화에 희망의 불씨를 던졌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수처 여사는 1989년 첫 가택 연금을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무려 15년간 구금생활을 했다. 그러나 언제라도 연금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美 공화당 4년만에 하원 다수당

11월2일 미국 총선은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대한 중간평가로 치러졌다. 결과는 야당인 공화당의 압승으로 나왔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종전 178석보다 61석이 불어난 239석을 확보하며 4년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해 그나마 위안거리다.



스마트폰 시대 본격화

애플 아이폰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해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80만대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올해 들어 700만대 정도로 급성장했다. 11월에는 애플 아이패드와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출시되면서 '태블릿PC' 시대가 열렸다.

'보따리 장수' 시간강사 자살

지난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45)씨가 "교수 채용 대가로 역대의 돈을 요구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씨의 유서는 이른바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스란히 투영하는 것이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

4월20일 미국 멕시코만의 마르도 유정에서 영국 BP의 원유 시추시설이 화재와 함께 폭발해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11명이 숨졌고 시추시설이 해저로 추락하면서 멕시코만에 약 490만배럴의 원유가 유출되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졌다.

中-日 다오위다오 분쟁

지난 9월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은 중국과 일본 간의 전면적인 갈등을 촉발했다. 중국은 회토류 수출 중단 등의 초강수 조치로 일본을 압박했고, 결국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백기를 들었다.



대기업-중소상인 'SSM 총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를 점점하려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충돌이 광주 지역 곳곳에서 벌어졌다. 지난날 유통법·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조례도 만들어졌지만 마찰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코스피 2000시대 개막

코스피지수가 지난 12월 14일 2007년 10월 31일 이후 3년1개월여만에 2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2007년 7월 25일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938.75까지 추락한 후 다시 2000선을 회복했다.



전세계 휩쓴 자연재해

1월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은 최소 25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한 달 뒤엔 칠레에서 규모 8.8의 강진과 쓰나미 발생, 주민 700여명이 숨졌다. 8월엔 중국의 폭우와 산사태로 2000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파키스탄에서도 대홍수가 발생했다.

한반도 갈등속 김정일 방중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월과 8월에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과 연이은 정상회담에 응함으로써 우리의 과시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올해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맴돌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